



늘푸른목장의 함진아비

정 태 룡 <소설가>

늘푸른 목장의 권기섭이 내일 장가를 가는 데 내가 오늘밤 함을 지기로 한것은 친구 의리에 앞서 내 나름대로 꿩꿩이속이 있어서였다. 권기섭과 나는 학교동창으로서 둘이 죽이 맞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공짜로 고생하는 건 돈버는거 아니겠느냐 배짱으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없는 돈을 모아 이곳 야산을 헐값에 사들여 개간해 이젠 쪼트소 30두를 키우고 있는 죽마고우이다. 빈털털이에서 이젠 어엿한 목장주에 한눈은 장가까지 들게 되었으니 판에는 자부심도 가질만한 터수였다.

한데 그렇게 자나새나 늘 같이 자고 함께 일하던 녀석이 느닷없이 장가를 들게되자 난 감해진 건 바로 내 처지였다. 그로 말하면 이미 신접살림 차릴 새집을 별바른 목장 한귀퉁에 따로 지어놓은 터이니 이젠 도리없이 나 혼자 목장집에서 독수공방을 하지 않으면 안될 궁지에 놓이고 만 것이었다.

그나 나나 어느새 오년여, 목장 개간하라 축사 지으라 소 먹이라 세월 모르고 일하다 보니 이미 나이 서른인데, 늙다리 총각이 기나긴 이 가을밤을 홀로 지새워야 한다는 건 참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청승맞고 정나미 푹 떨어지는 일이 아닐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 벌써 며칠째나 권기섭이 결혼채비를 한담시고 백리나 떨어져 있는 대전 자기집엘 왔다갔다 하는 동안 혼자 이리딩굴 저리딩굴 잠을 설치가면서 생각을 굴러보았던 것이다. 제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별다른 묘안이 없을

거 같았다. 권기섭이 장가가기로 돼 있는 민들레목장의 옥선이 여동생 미선이를 이번 기회에 초전박살기습작전으로 낚아채 데려다 앉히는 도리밖에 없다는게 나의 마지막 결론이었다.

듣기로는 미선이는 민들레목장의 여장부 박옥선의 사촌여동생이란다. 체격은 언니만큼 못해도 영리하고 생김새도 반반해서 이주변 목장의 소위 바지두른 남정네들이라면 한눈에 군침을 삼키리만치 괜찮은 처녀였다. 본래 말씨하며 행동거지가 영악하다보니 인물값 한다고 미선이 역시도 자신이 헐값에 흥정될수 없는 비싸다면 비싼 규수임을 암암리 자부하고 있는듯 했다. 평소 '어려운 일 있으면 자진해서 도와주겠다.'는 주변남자들의 성심어린 제의를 콧방귀 한방으로 날려버리는 버르장머리에도 그런 기색은 유감없이 드러나 있었다.

'흥. 도와주겠다고? 날 꼬셔서 팔자를 조지게 만드는 일에 기억하겠단 말씀이지. 그런 헛튼 수작은 이미 졸업한지 오래라구. 판테나 가서 알아보슈.'

그녀의 알미운 표정속엔 그런 속말들이 감춰져 있었다. 그러나 양가집규수가 문단속은 잘해도 속곳단속은 잘못하더라고 노출되지 않아 그렇지 다 그 나름대로의 헛점은 갖고 있는법. 요컨대 그 헛점을 정확히 그리고 적시에 기습하면 끝장인 거였다.

제가 아무리 도도하고 잘난 처녀라도 일단 머리없어 집안에 들여앉혀 놓으면 애냥고 빨

래하고 살림이나 했지 용빨재주가 없게 되는 법이었다. 이런 날강도 같은 뱃심으로 미션을 후려내기로 작심을 하고 기회만 엿봐온 게 어느새 한달여 - 그러니까 나와 함께 땀 흘려 지은 권기섭이 살 신접살림집의 마지막 기와를 올린 날 부터였다.

돌이켜보면 녀석이 장가를 들게 된 경위 역시 별다른 연분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하루는 조봇한 농로를 경계로 이웃해 있는 민들레목장의 소들이 목책을 넘어와 우리 늘푸른목장의 풀을 꽤 많이 뜯어먹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평소 나보다도 더 착실하고 부지런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권기섭이 이미증유의 사태에 가만 있을리가 없었다. 짓소보정때나 써먹는 밧줄을 들고 달려가서는 그 뒤마리의 소들중 한놈의 목아지를 잡아내 끌고와 우리축사에 가뒀버렸던 것이다. 소주인이 오면 다신 이런 일이 없게끔 혼뜨감을 내고 아울러 풀밭을 물려 받고야 말겠노란 속셈에서 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해거름 녀 젓짚 무렵 즈음해서 근방에서 여장부로 통하는 민들레목장의 옥선이가 혈레벌떡 달려 왔다.

“이봐요. 풀은 소가 먹으면 금세 우유가 되고 우유는 곧 돈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풀은 곧 돈이다.’란 삼단논법은 잔리더라 그거예요. 오늘 댁의 소 세마리가 적어도 서너시간 이상 먹은 풀을 당장 변상해 놓지 않으면 이소는 못 가져가는 소니 그리하시오.”

본래 간간한 성미에 따지기로는 근동 사십리 안에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소문난 권기섭의 일갈에 옥선이는 어안이 병병한 모양이었다.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입도 커 소피아로렌을 닮은 그녀는 평소 일은 잘해도 대범한 성격이었는데 어이없이 일방적으로 몰리자 너구리도 구르는 재주가 있더라고 큰 눈을 더 크게 치뜨고는 홀연 반격에 나섰다.

“뭐가 어쨌어요? 사내대장부가 제제하게 우리 애들(소를 말함)이 풀 몇줌 뜯어 먹은걸 갖고 뭘 그러세요? 아니 남의집 아이들이 우리집

에 놀러와도 사탕·과자 등 여기저기 뒤져 먹어보라고 권한 게 세상인심 아니던가요? 원인심도 -.”

“그거하곤 질적으로 달라요. 목장하는 사람한테 풀은 곧 사탕이나 과자가 아닌 피나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풀 없으면 곧 목장이 망하고 목장이 망하면 나역시 한목숨 부지하기가 어렵게된다 그거예요. 내말 틀립니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까 우리 애들이 뜯어 먹었다는 풀밭근처를 오면서 보니까 쇠똥들이 많이 널려 있던데 아다시피 그건 곧 풀을 기르는 밑거름임에 틀림 없어요. 또 그 쇠똥들은 시간상으로 봐서 우리 목장풀을 먹고 댁의 목장에 와서 썩게 분명하니까 그 똥들을 죄다 모아주세요. 풀을 변상하는 대신 전 그 쇠똥들을 가져갈 테니까요. 쇠똥은 풀의 밑거름이 되고 풀은 우유가 되고 우유가 돈이 된다면, 댁의 말을 그대로 빈다면 쇠똥은 곧 돈이란 사단논법도 진리 아닌가요?”

옆에서 가만 듣고 있던 나역시 옥선이의 이명석한 분석에 두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잘하는줄 알았더니 그녀는 싸움에도 능하고 두뇌회전도 빠른 상당히 괜찮은 처녀였던 것이다.

결국 내가, 그럼 피장파장이니 없던일로 덮어버리자고 중재에 나서 소를 내줌으로써 일단락이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별 유쾌하지 못한 일이 두사람을 결합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은 기실 나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다. 그후 어느날 민들레목장의 경운기가 고장난 걸, 기계에는 박사로 통하는 권기섭이 가 고쳐주고 또 젓소가 난산 때문에 고생하는걸 가서 도와줘 송아지를 순산시켜 주는 일등이 몇번인가 거듭되더니 경운기 밑에서 또는 젓송아지 낳는 어두컴컴한 축사안에서 본디 으름스런 녀석이 무슨 말로 꼬셨는지 아뭏든 눈이 맞든 배가 맞든 뭔가가 맞아도 맞아 이제 바야흐로 내일 날짜로 결혼날이 코앞에 닥치게 된 것이었다. 여하튼 그건 백번 잘된 일일터이고 요컨대 남은 문제는 그닥에 팔자에 없는 독수공방신세가 돼버린 나의 딱한 처지였다.

내가 오늘밤 권기섭의 함진아비를 자청해 나선데는 바로 그런 남모를 답답한 속사정이 바닥에 깔려있는 터이었다.

백리밖 대전에 있는 그의 집에서 꾸며온 함을 광목띠로 정중히 싸매 어깨에 둘러멘 뒤 내가 이곳 객지친구놈들 서넛과 목장을 나선 때는 이미 땅거름이 지난 초저녁 무렵이었다.

우린 일부러 일을 재미있게 꾸미노라 목장 바로 아랫동네에 까지 들러 '함들사시라'고 온동네가 떠나가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수선을 떨어 구경꾼들까지 열댓명을 광무니에 달고는 민들레목장으로 올라가 신부집은 아직도 까마득한 목장의 입구에 퍼질러 앉았다. 땀을 들이는 것이었다. 곧이어 옥선이와 같이 목장을 하는 남동생 옥남이와 그곳 친척들 몇사람이 개다리소반에 주안상을 차려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린 상을 받아 역시 앉은 자리에서 한잔들씩 기분 좋게 이빨들을 적신다음 못이기는 체하며 열댓걸음 정도를 가 주었다. 거기서 다시 안방아랫목인양 털버터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버리자 그 친척들중 중년정도 돼 보이는 분이 이러시면 되겠냐면서 슬쩍 내 주머니에 돈 봉투 하나를 찢러 넣어 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함진아비 나설때부터 작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놈을 꺼내 도로 내 주면서

“노자가 떨어지게 아니고 먼길 오느라고 다리가 아파서 이제 더 이상 한발짝도 더 못 가겠다.”고 엄살을 떨었다.

“아니 이사람아. 늘푸른목장서 민들레목장이 엮어지면 코닿을텐데 멀긴 뭐가 멀어? 눈이 멀었남?”

아까의 그 입심개나 씩씩한 중년어른이 한마디 통기자 와아 사면군데서 웃음판이 벌어지고 분위기가 한결 더 고조되어갔다. 이런때 말싸움에 지면 곧 지혜에서 지는걸로 돼있는 까닭에 어거지로나라도 대거리를 해야하는 법이다.

“눈이 멀었느냐 그말씀 같은데 - 눈이 멀긴 멀었지요. 총각 함진애비가 신부집 예쁜 규수들 때문에 눈이 좀 멀었기로서니 그게 뭐그리 큰 잘못입니까?”

“신부집 규수라면 - 널 시집가는 옥선이 말고 누가 있나? - 오라 미선이년이 있구먼 그래 아하 그럼 함진애비가 미선이 땀에 눈이 멀어 가는길을 잃고 이렇게 이슬내리는 한데서 노숙을 하겠단 말씀이오?”

애기가 그럭저럭 묘하게 잘 풀려 나가는데 나 역시 한결 더 용기가 돋았다.

“맞습니다. 몇푼 안되는 노자 다 필요없고 - 절 데려가려면 저를 눈멀게 만든 장본인이 나와서 내손을 붙잡아 들이지 않으면 안가는 게 아니고 눈멀어 못간다고 좀 수고스럽지만 전해 주십시오. 단 한발자국도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말이 모두 이 축제전야 분위기를 한층더 흥겹고 재미있게 만들려는 말놀음인 줄만 알고 목장하늘이 떠나가게 박장대소를 하고 있었다.

“자알 한다 함진애비. 여간내기 아니구먼 그랴.”

“돈이 나오든 색시가 나오든 나올때까지 일어나지 마라. 함진애비 브라보다!”

브라보라니 - ? 예가 무슨 아이스크림 선전하는 장소라도 된단 말인가?

내가 막무가내로 버티고 안 일어나자 옥선네 축에선 도리없다고 느꼈는지 마침내 어찌 구워 삶았든지 간에 행주치마 바람의 미선이가 붙들려 나왔다.

“왜그래요 도대체. 어찌 안들어오고 버티는 거예요?”

그녀가 내게 쏘아댄 첫마디였다.

“버티다니? 내가 지금 누구땀에 눈이 멀어(노래) <백마는 가자 울고 날은 저문데> 도 못가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야 그거? 자, 내손을 잡으라구. 눈이 멀어 단 한발자국도 더는 못 움직이니가 말씀이야.”

“아유 망측도 해라. 무슨 흑심을 품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흑심? 그래 조용타. 총각이 처녀한테 흑심 좀 품었기로서니 그게 무슨 별난 일이나? 손안 잡아주면 좋다 이기야 나도 못간다고 내가 못가면 함도 못가는거고 함이 못가면 너네 언니도

넬 죽두리 쓰고 시집가긴 다틀러버린거다 그거야. 맘대로해 맘대로 하시라구.”

억지가 사촌보다 낫더라고 억지도 때로는 쓸모가 있는 법이다. 친척들 등쌀에 못이겨 미션인 마침내 내손을 잡고 말았으니 말이다. 아니 내 손아귀에 잡히고 만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해서 끝낼 내가 아니었다.

“자 그럼 일단 손은 잡았으니까 내말을 따라하는거야. 모든 절차는 이것으로 끝낼테니까 군소리 말고 따라서 하라구.”

“그게 대체 뭔데 그래?”

“자아 시이작 미션이는-.”

“미션이는-.”

“합진애비를-.”

“사랑한다!”

“....”

어렵쇼 대꾸가 없는건 고사하고 뺨손을 빼려고 드는걸 더 우악스럽게 잡아챘다.

“안해? 안하면 끝장이라구.”

그러자 친척들은 물론 모여있던 구경꾼들마저 하라고 욕박지르는 바람에 미션이는 별수없이 모기 소리만하게나마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소리가 작다는걸 트집잡아 다시한번 크게 복창을 시켰다. 또 한바탕 웃음의 파도가 밤하늘 멀리까지 출렁거렸다.

“그럼 이번엔 차기쪽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아암 여부가 있겠나?”

그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친구놈들이 잡는걸 뿌리치고 번개같이 집쪽으로 내달려 마

루에 놓인 백설기떡시루상 위에 선선히 지고온 함을 내려놓았다. 헐레벌떡 달려온 친구놈들이 이번엔 합진애비를 죽여 버린다고 하며 별떼같이 덤벼 들었다. 다름아닌 노자돈을 단 한푼도 뜯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야 망할 자식아 적어도 너 이따 시내나가 스텐드바에서 술한잔 먹을 돈은 뜯었어야 될게 아니냐 말야 이 엠병할 합진애비새끼 같으니라구.”

“뭘. 술살 돈? 그런거 염려말아라. 미션이가 합진애비를 사랑한다는데 있어서 가만 있을 거 같으나. 암소 밧마릴 팔아서라도 술만은 너네들 모두 코가 쑥 빠지게 살 모양이니까 염려를 놓으라구.”

“빌어먹을 어떤놈이 장갈 가는지 당최알수가 없네그라.”

권기섭의 한마디였다. 그말에 모였던 구경꾼들이 또 한바탕 와아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경황에도 언뜻 보자니 미션이가 쪽마루계 서서는 나를 쳐다보며 입을 가리고 웃고 있었다.

정 태 룡 <소설가>

- 인천직할시 출생
- 고대 철학과 졸업
- 現代文學지에 <益裁人間> <汚染時代>가 추천되어 문단에 나옴.
- 作品으로 <罪人の 마을> <倉舍望> <이승 편지> <地球村 셋방살이> 등등이 있고 팜트집 <사냥시대>가 있음.

❖ 경 축 ❖

88년 서울올림픽개최
86년 아시안게임개최

우유도 가정마다
금매달도 가슴마다